

KDB리포트

KDB Report

이슈브리프

프랑스 「AI 국가 전략」 주요내용
오픈랜(Open-RAN) 현황 및 전망

국제금융시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프랑스 「AI 국가 전략」 주요내용 | 1 |
| 오픈랜(Open-RAN) 현황 및 전망 | 3 |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국제금융시장 | 6 |
|--------------|---|

금융시장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금리 · 환율 · 주가 | 9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


프랑스 「AI 국가 전략」 주요내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한희영 (hanhy1324@kdb.co.kr)

- ◆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(AI) 경쟁력 강화를 위해 '18년부터 「AI 국가 전략」을 단계별*로 수립·시행중이며, 이를 통해 세계적인 AI 경쟁국으로 도약중
* 1단계('18~'22년) AI 연구역량 강화, 2단계('22~'25년) AI 혁신 가속화
 - ◆ 프랑스는 '25년 2월 고도화된 3단계 「AI 국가 전략」을 발표하였으며, 우리나라도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AI 육성 과정을 참고할 필요
- 프랑스는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18.3월 「AI 국가 전략」을 수립하였으며,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 결과 프랑스의 AI 글로벌 위상을 제고
- 1단계로 AI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5년간('18~'22년) 15억 유로를 투자
 - 2단계로 AI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 및 경제·산업 전반에 AI 기술 확산을 목표로 하여 5년간('21~'25년) 10억 유로를 투자
 - 영국의 Tortoise가 발표하는 AI 국가 순위가 '23년 13위에서 '24년 5위로 상승

1·2단계 「AI 국가 전략」 주요 내용 및 진행 현황

| 구분 | 주요 내용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단계 연구역량 강화 (‘18~’22) |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프랑스의 AI 기술 선도국 도약을 위해 15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 ▶ ①AI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, ②우수 강의 지원, ③박사 과정 프로그램 자금 지원, ④공공 연구를 위한 컴퓨팅 역량 투자* 등을 중점 지원 * Jean Zay(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) 구축 |
| | 성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년 AI 연구소가 유럽 최대인 81개에 도달 ▶ AI 관련 300개 이상 박사 과정 생성, 매년 4만명 학생 대학(원) 교육 ▶ AI 스타트업 수 502개('20년 대비 11%↑), 근로자 수 13,459명 기록* * 그 외 간접 일자리가 70,000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 |
| 2단계 AI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(‘21~’25) |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 기술을 통한 생산 및 혁신 수준 향상을 목표로 10억 유로 투입 ▶ 프랑스 전역에 9개 고급 교육허브를 구축, AI 클러스터 중심 생태계 조성 ▶ ①임베디드 AI*, ②신뢰할 수 있는 AI, ③생태전환 AI**, ④초거대 언어 모델 및 생성형 AI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 * 다양한 장치와 시스템에 AI 기능을 직접 통합하는 기술 ** 환경보호, 지속가능성, 기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AI 기술 |
| | 목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연구) '25년까지 매년 10만명 학생 교육 및 200개의 논문 작성, AI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기관 선정 ▶ (개발) '25년까지 글로벌 임베디드 AI 시장 점유율 10~15% 확보, AI 개발·테스트·실험 플랫폼 제공, 10개 에너지 절약 AI 시범사업 지원 ▶ (확산) '25년까지 400개 중소기업이 AI 솔루션 도입, 머신 러닝·로봇 공학 분야에서 자유로운 AI 플랫폼 및 생태계 개발 |

자료 :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디지털주권부 홈페이지 ('24.9)

□ '25년 2월 프랑스 정부는 1·2단계 「AI 국가 전략」을 고도화하여 AI 주권 확보 및 생성형 AI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단계 「AI 국가 전략」을 발표

- ①컴퓨팅 인프라와 AI 벨류 체인의 중요한 연결 고리 강화, ②AI 인재 양성 및 유치, ③AI 활용 가속화, ④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 수단 제공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

3단계 「AI 국가 전략」 주요 내용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컴퓨팅 인프라와 AI 벨류체인 연결고리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국 클라우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위해 자국내 공공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 ▶ AI 전용 인프라 구축에 있어 프랑스의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추진* * 35개 지역 후보군 설정 및 법적 승인 절차 간소화 ▶ UAE 연합 500억 유로, 아마존(미국) 12억 유로, 브룩필드(미국) 200억 유로, EVROC(스웨덴) 40억 유로 등 외국 자본의 인프라 투자 유치 |
| AI 인재 양성 및 유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규모 AI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 ▶ AI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프랑스식 MIT 출범 추진을 위해 3억 6천만 유로 투자 |
| AI 활용 가속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 활동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생성형 AI를 공공 정책 지원 용도로 배포 |
|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 수단 제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, 프랑스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유럽 최초로 AI 평가 및 보안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'INESIA'를 설립 |

자료 :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디지털주권부 홈페이지 ('25.2)

□ 프랑스의 일관된 AI 육성 전략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과정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

- 프랑스는 '17년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차례 총리가 변경되었고 내각 구성에 변화*가 있었으나, AI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일관되게 추진
 - * '18년~'22년 중도 과반 → '22년~'24년 중도 과반 실패 → '24년~ 좌·우파 혼합연정
- 또한 지역 대학과 기업, 연구소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AI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클러스터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였고,
- AI 박사 5,00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, AI 윤리 기준 정립과 EU 차원의 규제 선도에도 적극 참여중
- 우리나라도 국가적 추진체계의 신뢰도와 기업·학계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

< 참고 : 글로벌 AI 지수 >

- ▶ 영국 Tortoise Media는 매년 「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*」를 발표
- * 인재·인프라·운영환경·연구·개발·정부전략·상업 생태계 등 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하여 최종 순위 결정
- ▶ AI 국가순위('23→'24) : 한국 6→6, 프랑스 13→5, 미국, 중국, 싱가포르, 영국은 2년 연속 1~4

오픈랜(Open-RAN) 현황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조상진 (kiltos@kdb.co.kr)

- ◆ 오픈랜(Open-RAN)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간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기술로, 특정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
- ◆ 해외는 미국, 일본을 중심으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나, 국내는 아직 R&D 및 실증 단계로 오픈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

□ 오픈랜(Open-RAN)*은 통신장비의 공급망 다각화 및 통신망 구축 비용 감소를 가능하게 하여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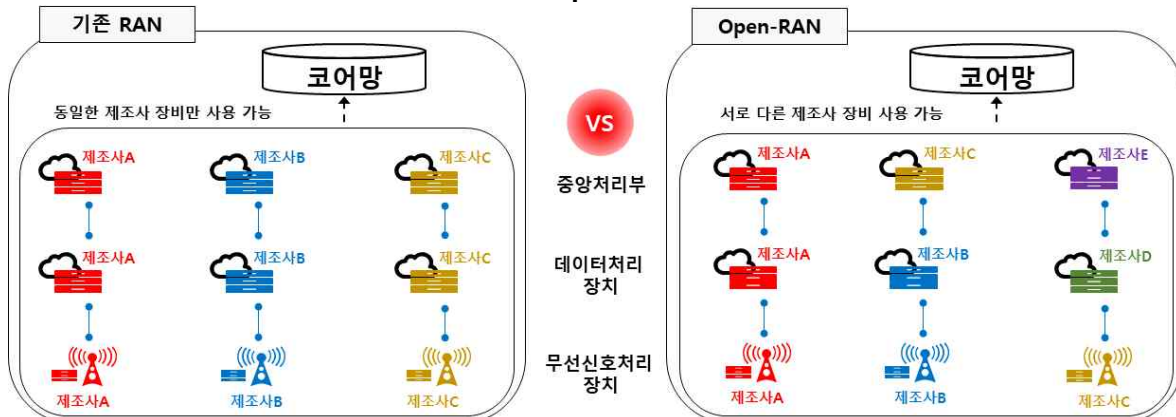
* 오픈랜(Open Radio Access Network, Open-RAN) : 기지국 등 무선통신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제조사 간 호환성을 확보하고, 서로 다른 제조사 장비 간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표준 기술

○ 기존 랜(RAN)*은 장비 간 호환성 부족으로 인해 화웨이, 에릭슨, 노키아 등 대형 제조사의 패키지형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존재

* 랜(Radio Access Network, RAN) : 스마트폰, 태블릿 등 단말기가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무선 통신망을 의미하며, 무선 신호 처리 장치(RU), 디지털 데이터 처리장치(DU) 등으로 구분

- (폐쇄형 구조) 장비 교체나 업그레이드 시, 서로 다른 제조사 장비 간 호환성 부족으로 하나의 특정 제조사에 종속(Lock-in)되는 폐쇄형 구조
- (비용 증가) 독점구조에 따른 경쟁 부족으로 장비 가격 상승, 운용비용 증가
- (혁신 속도 저하) 폐쇄형 구조는 무선망 시장에서 후발주자 및 스타트업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클라우드화, 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이 어려움

기존 RAN vs Open-RAN 구조 비교



자료 : LGU+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산업은행 재구성

- 오픈랜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혼합 연동 가능성에 따라 시장 경쟁 활성화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해 시장에서 주목
 - (개방형 구조) O-RAN Alliance* 등에서 제정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혼합해 사용 가능
 - * O-RAN Alliance : 글로벌 오픈랜 기술 개발을 위해 통신사 주도로 2018년 설립한 표준 개발 기구
 - (비용 절감) 여러 제조사의 장비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어 장비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,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운영비용도 절감 가능
 - (생태계 확장) 소수 제조사가 독점해 온 무선망 시장에서 후발주자와 스타트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태계 확장 가능
 - (기술 주권 강화) 특정 국가 장비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및 자국 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완화 가능

□ 미국·일본을 중심으로 오픈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, 유럽·아시아 지역에서도 오픈랜 시장이 확대될 전망

- (현황) 해외는 미국, 일본을 중심으로 상용화 단계(3단계)*에 진입했으며, 국내는 아직 R&D에서 실증(1.5단계) 수준으로 선도국을 뒤따르는 상황
 - * 오픈랜 기술 도입 단계 : 1단계(R&D) → 2단계(실증) → 3단계(상용화)
 - 미국은 오픈랜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, Dish Networks(통신사업자)는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하고 약 24,000개의 기지국 상용화
 - 일본은 자국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오픈랜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Rakuten Mobile은 세계 최초로 완전 가상화된 오픈랜 기반 5G 상용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픈랜 B2B/B2C 서비스 상용화 확대 중
 - 한국은 '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(ORIA)' 출범을 통해 오픈랜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며, 국내 통신 3사는 오픈랜 상용화에 앞서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에 주력 중

글로벌 및 국내 오픈랜 현황

| 구분 | 단계 | 내용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글로벌 | R&D(1단계) | - 오픈랜 국제 표준 기술, 네트워크 S/W 및 AI 기술 등 포괄적 분야 R&D 역량 확보 |
| | 실증(2단계) | - 미국·일본·유럽은 O-RAN Alliance의 인증을 받은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 |
| | 상용화(3단계) | - NTT Docomo(日), Vodafone(英) 등 글로벌 주요 통신사에서는 오픈랜 서비스 상용화 |
| 국내 | R&D(1단계) | -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일부 기술 초기 확보 단계에 불과 |
| | 실증(2단계) | - '23년 K-OTIC 개소 이후 처음으로 오픈랜 실증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한 수준 |
| | 상용화(3단계) | - 국내 통신 3사 중 오픈랜 기술 도입 및 상용화 진행 중인 기업 전무 |

자료 : 정보통신기획평가원(2024)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산업은행 재구성

- **(전망)** 유럽, 아시아 지역에서도 오픈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며, 국내에서도 오픈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&D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필요
 - 오픈랜 시장은 연평균('24~'28년) 21.3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(Omdia)
 - '23년에는 미국이 전체 시장의 45%를 확보하였고, '24년부터 유럽, 아시아 지역에서도 오픈랜 시장 확대 전망
 - 오픈랜, 5G/6G 등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오픈랜 상용화를 위한 R&D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필요
 - 미국 정부는 오픈랜 산업 발전을 위해 R&D에 15억 달러, 상용화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자*하고 있으나, 한국의 정부지원금 규모는 502억 원으로 미국의 1.7% 수준에 불과
- * 국가정보정보관리국(NITA) '22~'32년 무선공급망 혁신 펀드 조성

주요국 정책 및 R&D 동향

| 구분 | 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국 | - 2010년대 중반까지 주파수, 인프라 등 좁은 범위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중심의 투자 유도 (1단계) 미국 내 5개의 플랫폼(오프라인 4개, 온라인 1개)을 구축하여 오픈랜 R&D 환경 개선 (2단계) 오픈랜을 중심으로 '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' 기금 조성 '5G Challenge' 등 정책 및 R&D 지원 강화 (3단계) 6G-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전망 |
| 영국 | - 2021년부터 오픈랜에 총 2.5억 파운드(한화 약 4,300억원) 규모의 정책 자금을 조성하고, 도전적인 R&D 과제 지원, 오픈랜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자국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 노력 - 2022년, '안전한 네트워크,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통신 공급망'을 위한 '오픈랜 원칙'을 발표 (주요내용) 공공기관 오픈랜 채택 확대, 오픈랜 통신 장비 간 상호운용성 및 구현 중립성 입증 지원 등 |
| 독일 | - 2020년까지 오픈랜에 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왔으나, 자국 내 의회 및 연합정부의 오픈랜 도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픈랜 생태계 참여 - 2021년 'IT 보안법 2.0'을 통과시켜 자국 내 중국 장비 퇴출 가속화 |
| 일본 | - 2021년 미·일 정상회담에서 오픈랜을 포함한 5G-Advanced*/6G 개발에 협력하고 45억 달러 (약 5.8조원) 공동 투자 합의 (미국 25억 달러, 일본 20억 달러) * 5G-Advanced : 기존 5G의 초연결·초저지연·초대용량 성능을 고도화하고, 확장현실(XR), 위성통신을 접목하는 등의 진화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- 2022년 일본의 통신 산업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'5G-Advanced 위원회'를 수립하고, 오픈랜을 주요 전략에 포함 |
| 한국 | - 2023년 K-Network 2030 전략을 수립해 오픈랜 장비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(주요내용)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기술 개발, 테스트베드 구축, '상호운용성 실증행사' 개최 정례화 등 - 2023년, 정부 및 대·중소기업이 공동으로 ORIA(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)를 창립 (주요내용) 국내 첫 오픈랜 테스트베드(OTIC) 개소하였고, '24년 국내 기업 'SOLID'에 1호 인증 발급 |

자료 : '변화하는 오픈랜 패러다임과 미국의 정책 대응 방향', 정보통신기획평가원(2024)

국제금융시장 5월 동향 및 6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심한용 (hyshim@kdb.co.kr)
 박지혜 (jh5702@kdb.co.kr)

- ◆ (환율) 5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속에 한·미 관세협상 진행 등으로 하락, 6월은 무역흑자 등 하방 요인에도 트럼프 리스크 등 상방 요인으로 1,400원 근방에서 등락 전망
- ◆ (금리) 5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 감세안 하원 통과 등으로 상승, 6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우려 속에 상승 지속을 예상하나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상승 폭 제한
- ◆ (주가) 5월 주요국 주가는 美 관세협상 본격화 등으로 상승, 6월은 美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중단 판결 후 관세 부과 유지 결정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조정 가능성

□ 5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美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, 한은은 경기 방어를 위한 기준금리 25bp 인하, 中 인민은행도 대출우대금리 인하

- 美 연준은 FOMC(6~7일)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4.25~4.50%)
 - 美 경제의 1분기 역성장($\Delta 0.3\%$)에도 실업률*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등 고용상황이 양호하고, 인플레이션**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 동결
 - * 美 실업률(%) : 4.1('24.12월) → 4.0('25.1월) → 4.1(2월) → 4.2(3월) → 4.2(4월)
 - **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(% , yoy) : 3.3('25.1월) → 4.3(2월) → 5.0(3월) → 6.7(4월)
 - 파월 의장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반등의 위험이 증가하였고, 경제전망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라 금리인하 재개는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 표명
- 한국은행은 금통위(29일)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(2.75 → 2.50%)
 - 외환시장 변동성 등에도 물가* 안정세 속에 관세장벽 등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
 - 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1.9('24.12월) → 2.2('25.1월) → 2.0(2월) → 2.1(3월) → 2.1(4월)
 - 이창용 총재는 미국 관세 확대와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 전망치*를 하향,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자극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금리인하 시사
 - * '25년 한은 경제성장률/물가상승률 전망치(%) : 1.9/1.9('24.11월) → 1.5/1.9('25.2월) → 0.8/1.9(5월)
- 中 인민은행(20일), 대출우대금리(LPR)를 0.1%p 인하 (1년물 3.00%, 5년물 3.50%)
 - 인민은행은 미·중 통상마찰 대응과 내수 및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부양을 위하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금리*의 0.1%p 인하를 결정
 - * LPR금리 1년/5년(%) : 3.45/3.95('24.2월) → 3.35/3.85(7월) → 3.10/3.60(10월) → 3.00/3.50('25.5월)
 - 지급준비율*도 0.5%p 인하하며 中 당국의 완화적인 금융환경 조성 의지 강화
 - * 지급준비율(% , 대형은행/중소형은행) : 9.5/6.5/6.6('24.9월) → 9.0/6.0('25.5월)

□ '25.6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FOMC(17~18일) : 경기 둔화 징후에도 고용시장*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 중이며, 관세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기준금리 동결 예상, 금융시장**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

* 美 4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17만 7천명 증가,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분인 15만 2천명을 상회

*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97.9%(25.5.28일)

- 유로존, ECB 회의(5일) 및 일본, BOJ 회의(16~17일) : 유로존은 관세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동결 가능성 제기에도 물가* 안정세로 ECB의 25bp 금리인하 전망, 일본은 식품 중심의 높은 물가상승률** 지속 등으로 BOJ는 금리인상 전망

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yoy) : 2.4('24.12월) → 2.5('25.1월) → 2.3(2월) → 2.2(3월) → 2.2(4월)

**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(% yoy) : 3.6('24.12월) → 4.0('25.1월) → 3.7(2월) → 3.6(3월) → 3.6(4월)
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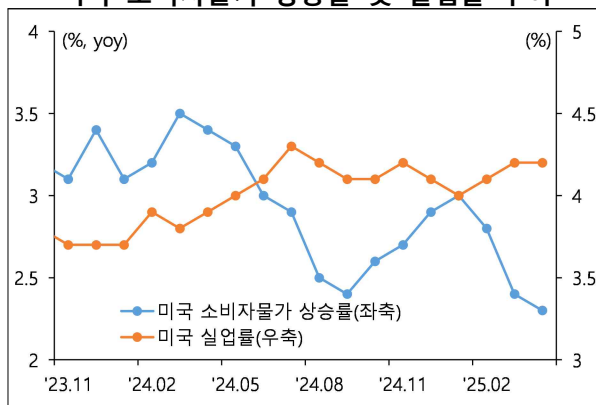
- (환율) 5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속에 한·미 관세협상 진행 등으로 하락, 6월은 무역흑자 등 하방 요인에도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1,400원 근방에서 등락 전망
- 5월 원/달러 환율은 미국의 對EU 관세 유예 등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약달러 속에 한·미 관세협상(16일) 진행 등에 따라 하락
- 6월 원/달러 환율은 무역수지* 흑자 지속 등 양호한 달러화 수급 등이 하락 요인이나, 한은의 금리인하 실시, 신정부 출범 후 추경예산 집행 확대, 트럼프 리스크 등 상방 요인에 따라 1,400원 근방에서 박스권 등락 전망

* 국내 무역수지(억달러) : 64.9('24.12월) → △18.6('25.1월) → 41.6(2월) → 49.2(3월) → 48.8(4월)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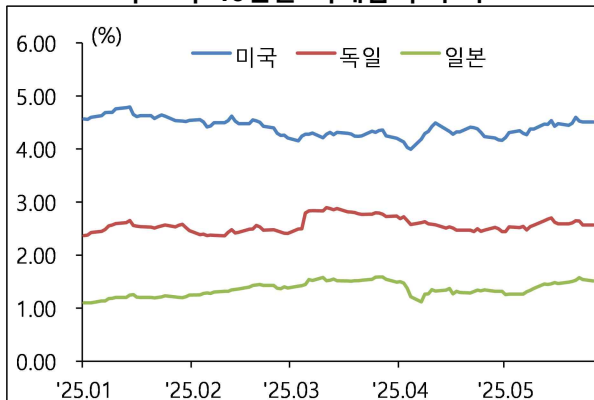


| | '23년말 | '24년말 | '25.4월말 | '25.5월말 | 전월대비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원/달러 환율 | 1,294.5 | 1,472.5 | 1421.0 | 1,367.3 | △3.8% |
| 달러 인덱스 | 101.47 | 108.09 | 99.644 | 99.082 | △0.6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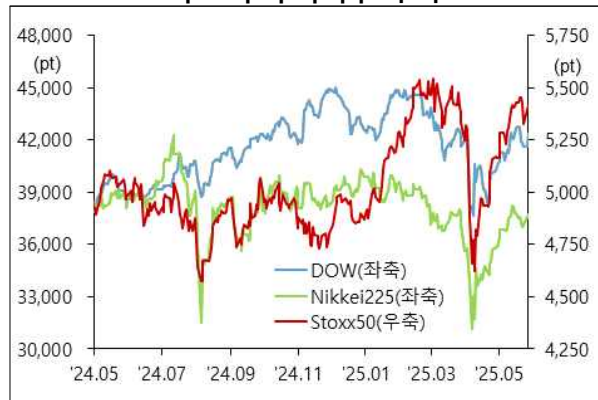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5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 감세안 하원 통과 등으로 상승, 6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우려 속에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
 - 5월 미국 금리는 감세안 하원 통과(22일)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등으로 상승, 일본은 BOJ의 국채 매입 축소*, 정치권의 소비세 감세 논의 등으로 상승, 유로존은 ECB 인사들의 금리동결 가능성 제기, 역내 확장재정 기조 등으로 상승
 - * '24.8월부터 '26.3월까지 매 분기 4천억엔씩 국채매입 축소, '25.6월 BOJ 금정위에서 중간평가 예정
 - 6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*과 일본('24년말 국가부채 비율 237%)의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상승을 예상하나, 채권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
 - * 美 의회예산안은 감세안 의결 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3.8조달러 증가를 전망
- (주가) 5월 주요국 주가는 美 관세협상 본격화 등으로 상승, 6월은 美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중단 판결 후 관세 부과 유지 결정 등으로 조정 가능성
 - 5월 주요국 주가는 미·영 무역협상 타결(8일), 미·중 관세합의*(11일) 도출 등 미국의 관세협상 본격화와 對유로존 관세 부과 연기(~7.9일) 등에 따라 상승
 - * 미국은 對中 상호관세를 90일간 인하(5.14일~8.11일, 125% → 10%)하고, 중국도 對美 관세를 90일간 조정(125% → 10%)하는 한편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비관세 조치 철회
 - 6월 주요국 주가는 美 법원의 상호관세·국가별 관세 부과 중단 판결(28일) 후 관세 부과 유지(29일)*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조정 가능성
 - * 5.28일 美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지적하며 상호관세·국가별 관세 부과 중단 판결, 이에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법원에 항소 및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, 5.29일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 정지 수용으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부과는 유지

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

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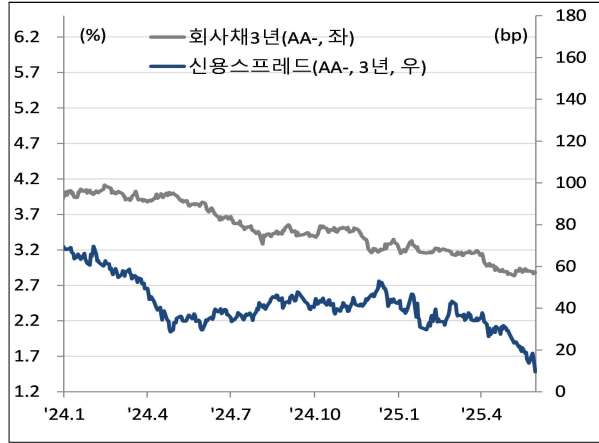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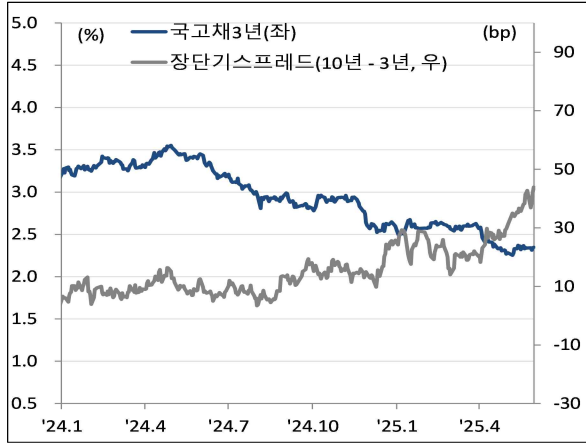


| | '23년말 | '24년말 | '25.4월말 | '25.5월말 | 전월대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미국채 10y | 3.897 | 4.533 | 4.162 | 4.511 | +8.4% |
| 독일채 10y | 1.979 | 2.367 | 2.444 | 2.567 | +5.0% |
| 일본채 10y | 0.623 | 1.101 | 1.317 | 1.513 | +14.9% |
| 다우존스 | 37,385.97 | 42,573.73 | 40,669.36 | 42,343.65 | +4.1% |
| 유로 Stoxx 50 | 4,521.47 | 4,869.28 | 5,160.22 | 5,415.45 | +4.9% |
| Nikkei 225 | 33,169.05 | 39,894.54 | 36,045.38 | 37,724.11 | +4.7% |

자료 : Bloomberg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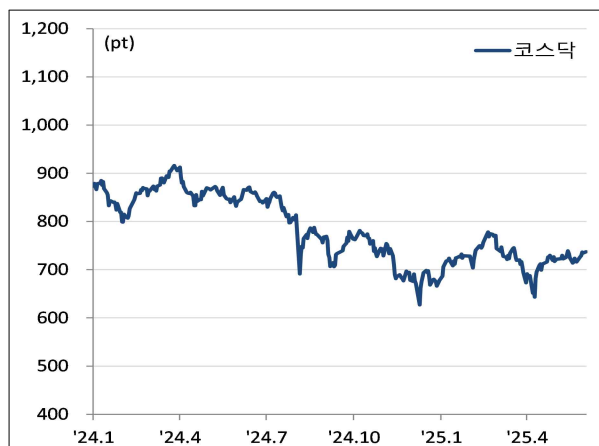
금리 국고채3년 2.347% (1.9bp ↓), 신용스프레드 9.6bp (8.9bp ↓)



환율 원/달러 1,380.1원 (17.7원 ↓), 엔/달러 143.79엔 (1.06엔 ↓)



주가 코스피 2,698.5pt (3.65% ↑), 코스닥지수 737.1pt (3.27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KDB리포트

KDB Report

제1070호

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37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